

# 순천만정원박람회 '정원체험선' 띄운다

순천만정원~동천 뱃길 2.5km  
내년 박람회 기간 수상보트 운행  
동천 중심 1.2m 준설 수심 확보  
경관조명 설치하고 선상 버스킹



순천시가 2023정원박람회 기간 동천에 띄울 '정원체험선' 잠정 디자인. <순천시 제공>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박람회장(순천만국가정원)과 도심을 뱃길로 잇는 '정원체험선'이 운행된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순천만국가정원과 도심을 연결하는 색다른 이동수단으로 편도 2.5km의 '정원체험선'을 운행키로 했다.

운행노선은 순천만정원 내 '순천호수정원'에서 수문(수로)을 타고 내려와 강폭 90m의 동천을 거쳐 풍덕스윙교(테라스가든) 선착장까지로 12명이 탑승할 수 있다.

순천시는 '정원체험선'을 정원박람회 핵심 콘텐츠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수광(李水光)의 승평지(1618년)에는 '해룡산 조양포(沙比浦)에 해룡장이 위치한다'는 기록이 있어 뱃길 복원의 의미도 담겨있다는 게 박람회조직위의 설명이다.

정원체험선의 사업예산은 11억원이며 12인용 선박(수상보트)의 크기는 전장 9m, 선폭 3m, 높이 2.8m 이내이며, 박람회장 수문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소형선박을 투입했으며, 재질 또한 유리섬유(FRP)보다 친환경적인 알루미늄 소재를 선택했다.

박람회 기간 총 4대(안전관리선 1대 포함)가 운

행되는 보트는 오후 9시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1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탑승은 예약제로 운영된다.

'정원체험선'은 3대가 하루 50회 운행(1일 최대 500명 탑승)하고 탑승정원의 80~90%가 충족될 경우 운영비 총당이 가능할 것으로 박람회조직위는 예상했다.

수상보트에서 바라보게 될 동천변 볼거리를 위해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동천 화훼경관과 선상 버스킹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요금은 편도 7000원(성인 기준)으로 잠정 책정했는데, 이는 경남 남강유람선(8000원), 포항크루즈(1만5000원)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박람회조직위는 강조했다.

시는 정원체험선 운영이 가능한 정도인 최소한의 수심확보를 위해 동천 중심부 1.2m 정도를 준설할

계획이며,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선박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보트운행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최소화를 위해 속도 5노트(10km/h) 수준으로 운항해 소음과 물결 발생 현상을 최소화하고 수상생물 보호를 위해 동천 중심 부분 20m 정도만 뱃길로 사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람이나 자전차가 통행했던 '신산교' 일부를 아치형으로 개조해 '정원체험선'의 통행할 여유공간을 확보키로 했다.

천재영 순천만정원박람회 조직위 사무총장은 "하천 준설의 경우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오래된 퇴적물 정도만 걷어내 오히려 수질개선 효과도 있다"며 "정원체험선은 박람회 뿐만 아니라 폐막 이후에도 계속 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여수시민의 날' 14~15일 체육·문화예술행사

14일 진남경기장서 기념식

여수시가 14일 진남경기장에서 여수시민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민의날인 매년 10월 15일을 맞아 26개 읍면동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했으나 지난 수년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대로 된 행사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소통과 화합'의 행사를 마련해 14~15일 대대적인 시민의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14일 오전 진남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시민의 날 기념식은 초청 인사와 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행사와 기념식,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여수시립국악단과 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수단 입장, 개회선언, 대회기 제양과 성화 점화, 시민의 상과 자랑스런 여수인 시상 등이 이어진다.

여수시민의 상은 고호주 6·25참전학도병충훈선 양회 회장이, 자랑스런 여수인은 주승용 전 국회의원장과 김보라 안성시장, 차정환 한국문화재사 진연구소장이 각각 수상해 시상식이 마련된다.

기념식 후에는 추첨을 통한 경품 증정과 가수 인순이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15일까지 체육행사를 비롯해 이순신광장과 거북선공원 등 지역 곳곳에서 시민의날 의미를 더하는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가 펼쳐진다.

종목별 경기장에서는 읍면동 선수 6000여명이 축구와 배구, 탁구 등 15개 종목에서 동네의 명예를 걸고 비지땀을 흘린다.

14일 오후 1시부터는 진남체육공원 야외무대에서 전통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열린다.

14~16일 중앙동 일원에서 여수 문화재야행이 열린다. 이어 14~15일 이순신광장에서 제4회 남도생활경향교육원도 시민의 날 행사 기간 교육원 내 기초체력단련장인 골프장 등 이용권을 여수시민에게 50% 할인해 제공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체육행사, 문화예술행사와 연계한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소통과 화합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한 만큼 많은 시민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곡성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쌀이 좋아요' 성료

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하는 2022년 영양특화사업 '나는 쌀이 좋아요' 프로그램이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곡성군은 건강하고 영양이 높은 급식을 위해 송원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지역 내 어린이 관련 시설의 급식을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 건강한 식습관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나는 쌀이 좋아요' 프로그램은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 2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우리 쌀에 대해 이해하고, 쌀로 만드는 여러 가지 음식을 배우면서 우리 쌀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내 얼굴 샌드위치 만들기'라는 푸드 아트 테라피 교육은 호응을 얻었다. 푸드 아트 테라피는 골고루 먹는 식습관 형성은 물론 어린이들의 창의력 발달과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센터는 가정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각



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최근 개최한 '나는 쌀이 좋아요' 프로그램.

가정에 어린이 1명당 1회 섭취 분량에 맞춰 곡성군의 대표 쌀인 백세미를 다양한 레시피와 함께 제공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계자는 "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 발달과 식습관 형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영양과 더불어 위생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 워크숍·단체 힐링 코스 인기

8개 숙박시설 연말까지 예약 완료  
15·22일 숲속 음악회 개최



제암산자연휴양림 전경. <보성군 제공>

여름철 수많은 관광객을 끌었던 '놀이숲'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을 행락객을 맞이한다.

보성군에 따르면 제암산자연휴양림은 기업 워크숍과 대학생 MT 활동 등으로 예약이 몰리면서 주말에는 48개의 숙박시설이 매주 만실을 기록하는 등 올 연말까지 단체 예약이 완료됐다.

제암산자연휴양림은 전남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자연휴양림으로 160ha 규모의 산림 안에 48개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놀이숲'이라는 별명을 보유한 제암산자연휴양림은 짙어진, 에코어드벤처, 곰썰매 등 숲을 활용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으며, 유모차나 휠체어를 타고도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데크길이 대표 시설이다.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숲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치유 여행을 할 수 있어 힐링 여행객에게 인기가 많다. 코로나로

주춤했던 이용객들이 최근 크게 증가하며 숙박 이외에 부대시설과 데크길 이용객이 늘었다.

가을을 맞아 10월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는 숲속 음악회가 진행된다. 오는 15일과 22일(오후 4~5시) 소나무숲 야영장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다. 통기타와 성악, 색소폰, 7080 가요, 국악 등 다양

한 무대가 준비돼 있다.

제암산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이용객들과 보성군민 대상으로 진행되는 숲속음악회는 별도의 관람료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관람객 대상으로 소정의 상품을 수여하는 노래자랑도 진행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광양시 은퇴자 대상 생애 재설계 프로그램

광양시가 은퇴하거나 은퇴를 앞둔 주민들의 노후 컨설팅에 나선다.

광양시는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급증하는 신중년층 대상 '생애 재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생애 재설계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1일~12월 3일 매주 화요일 전문 강사를 초빙해 우리 지역 은퇴자 정책 알기, 생애 4대 영역(건강·여가·관계·재무), 분

야별 성공사례, 컨설팅을 겸비한 노후 설계 실전 등 15시간 진행하며, 마지막 차시에는 본인이 그린 노후 설계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거주하는 50~64세 은퇴(예정)자이며, 모집인원은 최대 25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1~19일이며, 신청을 원하는 이는 전자정책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